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6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13,24-4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서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됩니다.

3단계 : 성서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 마태 13,24-43

가라지는 다 자라 누렇게 되기 전까지는 구별이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가라지를 뽑으려 들다가는 아까운 밀까지 뽑아 버릴 위험성이 높다.  
이삭이 꽤어 구분이 가능할 때 에도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함께 뽑힐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팔레스티나에서는 추수할 때까지 남겨 두었다가 뽑아 가려내고 가라지는 땀감으로 사용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풍습을 비유로 들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신다.  
세상에는 밀(선)뿐 아니라 가라지(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추수 끝인 하느님께서는 최  
후 심판 때에 모든 악을 없애 버리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신다.  
당장 세상에서 악인을 처벌하시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28절) 참고 기다릴 것을 권고하시며 판단  
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음을 가르치신다.  
“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29절)라고~  
연약한 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큰 이유는 선과 악은 확연히 구별되는 개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함께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악은 바로 잡을 수 있고 선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아시기에 성급한 판단이나  
단죄보다는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평온함을 위해 조금해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느님 나라를 위해 겨  
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밀가루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오를 때까지(33절) 그 속에 들어가 없어지는 누룩처럼 되어야 하며,  
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 선인과 악인 모두 회개시켜 짓들게 하도록(32절)씩을 띄워야  
한다.

제자들에게 따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은(36절 이하)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신 것이  
다. 선인과 악인의 판별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구원의 기  
준이 되지는 못한다.

신앙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을 때 하느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실 것이요(42절) 참  
된 의인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나누게 될 것이다.(43절)

\*\* 애틍는 가슴으로 늘 우리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보자  
마음 밭에 뿌려진 것이 가라지인지 밀인지는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창세기의 내용과 구조!"

5분 상식

창세기는 크게 태고사(1-11장)와 성조사(12-50)로 나뉩니다. 우주의 창조, 죄의 기원과 확산, 성조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는 오경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태고사(1-11장)** 천지 창조와 죄의 기원 및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세분하여 보면, 천지 창조(1-2장), 죄의 기원(3장), 카인과 아벨(4장), 대홍수(6-9장), 바벨 탑(11장), 족보(5장;10장)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조사(12-50장)**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및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시어 큰 땅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십니다(12-25장), 이사악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어진다는 내용(26-36장)과 요셉 이야기에서 당신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37-50장)에 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 공지사항

### '바로 해' 개막

- 성(聖) 바로로 사도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바로 해'가 6월28일부터 시작 됩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8년 6월28일부터 2009년 6월29일까지 1년간을 성 바로로에게 바치는 특별 성년으로 선포하고
- 성 바로로 사도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로 사도의 신앙과 영성을 본받고,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에, 교회 신자들도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함으로써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버리고, 바로로사도의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달 성경말씀

마태 15, 21-28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시며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여인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즉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포기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소공동체가

최서원 정정수  
작곡 원정수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웹미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땀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야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